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11. 14.(월) 11:00 < 11.14.(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1. 13.(일)
담당 부서	소재융합산업정책관 철강세라믹과	담당자	과 장 오충종 (044-203-4290)

민관합동 『철강수급조사단』 중간결과 발표

-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해
국가기간산업으로서 보다 철저히 대비했어야

- 전체 공장의 재가동은
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내년 1분기 마무리

-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업무지속계획(BCP) 수립 필요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 이창양)는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수해 이후 구성한 민관합동 **『철강수급조사단』**으로부터 **조사 중간결과를 보고**(10월 말) **받은 바, 해당 내용을 발표함**

민관합동『철강수급 조사단』개요

◇ **(배경)** 정부 주도「포항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」와 병행하여 민간전문가 중심의 객관적·전문적 상황 판단 및 대책 방향 제시

◇ **(역할)** ① 재난 대비 시스템 점검 및 피해원인·상황 파악을 통해 **현존 주력산업의 재난 대비 시스템 개선방향 제시,** ② 설비복구에 따른 **철강 생산 정상화 시기 예측**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반영

◇ **(구성)** (단장)연세대 민동준 교수, (간사)금속재료연구조합 김영주 상무, (조사위원)철강설비 전문가(김동철, 설진삼), 재해재난 전문가(김태형, 김계조), 수급 전망 전문가(산업연 정은미 본부장) (정부)산업부·고용부 실무자 3인

◇ **(활동기간)** 9월 중순~12월말

□ 민관합동 10인으로 구성된 『철강수급 조사단』은 9월 중순 구성 이후, 사전 준비회의 및 **3차례의 포항 현장조사**를 통해 피해상황 확인 및 복구계획 점검, 수급차질 대응계획 점검 등을 진행하여,

○ 침수 피해로 인한 **철강재 수급차질 영향을 분석**하고,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**재난대비 시스템 개선 등 권고사항을 중간 도출**함

1. 조사 내용

□ **(피해)** 금번 피해의 원인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강한 집중 호우*가 내려 **도심하천(냉천)이 범람,**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,

* 중심기압 950hPa, 최대풍속 초속 43m(시속 155km) 등 '59년 사라, '03년 매미보다 상륙시 강도가 강할 것으로 예보

○ 그 결과, 포항제철소 2문, 3문 측으로 하천수가 집중 유입되어,

→ ① 수전설비(154KV) 침수, ② 정전에 의한 선강*설비 가동중단,
③ 압연지역 침수로 각종 전기 및 제조시설 마비 및 화재 등이 발생함

* 고로/파이넥스/코크스/제강설비 등 제선.제강공정을 통칭

○ 이로 인해 포스코의 매출감소 2조 4백억원, 포스코에 납품하는 기업의 매출차질이 약 2,500억원 규모로 추산됨

□ **(사전대응 및 복구)** 태풍 예보에 대해 포스코는 사전 조업중지 등 대응*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**압연지역 및 수전설비 침수·화재**가 발생하여 전체 공정 가동 중단 후 순차적으로 복구** 중이며,

* (상공정) 고로 휴풍 및 전로 출강 중단, (하공정) 전 압연라인 가동 중단

** (상공정) 정상화 완료, (하공정) 11.10(목) 기준 18개 제품공장 중 6개 복구 완료 (2.3 전기강판, 1열연, 1냉연, 1선재, 3후판), 연내 9개 추가 가동 예정

○ '23.1분기까지 STS1냉연공장, 도금공장 등 나머지 2개 공장이 재가동을 마치면 포스코 제품생산 설비는 피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

* 1후판공장은 복구 일정 미정

□ **(수급안정조치) 포항제철소에서만 생산하는 3개 품목**(전기강판, 선재, STS)을 중심으로 수급차질이 우려되었으나,

○ 광양제철소 전환생산, 국내 협력생산, 수입 등으로 긴급 대응하여 **현재까지 철강재 시장에서 수급 이슈는 없으며**,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, 시장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설비가 복구되는 **연말까지 수급애로 발생 가능성은 낮은** 것으로 보임

○ 또한, 포스코도 국내 공급사와 협력사에 대해 1,707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침수로 매출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해외수출을 주선하는 등 협력기업 지원방안을 시행중임

○ 다만, **2열연 등 향후 설비복구일정 지연여부**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체생산을 통한 공급을 추진중인 LNG운반선 화물창용 스테인레스 등의 **진행상황**을 **긴밀 주시 필요**

2. 평가 및 권고 사항

□ **(재발방지를 위한 권고)** 조사단은 포스코가 주요 제조업에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**국가기간산업**으로 **최고 수준의 재난에도 대응**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, 세 가지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음

① 우선, 금번 수해 대응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확인된 **포스코 배수시설 및 자가발전설비 등 설비의 보완**이 필요함

-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능성을 고려한 **배수체계 개선**이 필요하며, 주요 외부 유입수 예측지점에 **차단벽 등 구조물 설치** 검토 필요

- 한편, 수전변전소 침수로 제철소 정전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, 한전 수전설비에 더해 **자가발전설비를 보완**하여 변전소 침수로 인한 정전에 대비 필요

② 포스코의 기존 재난 대비 매뉴얼은 **일반적 재난에 대비한 통상적 매뉴얼**인 만큼, 금번 수해 대응의 경험을 반영하여 **재난 대비, 재난 복구, 시장 보호** 등을 포함하는 기업활동 지속전략(BCP)을 수립해야 함

< 신설 BCP 포함 주요 내용 >

- **(재난대비)** 태풍, 지진, 화재, 해일 등 최고 수준의 재난에 대응하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연속성계획 수립/이행 필요
- **(재난복구)** 침수로 인한 모터 및 전기설비 손상시 수리 부품의 수급의 안정성 담보 필요, 설비 파손시 부품·인력 조달 등 복구에 관한 BCP 구축 권고
- **(시장보호)** 강종 고급화에 따라 일부 강종은 수요처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바, 인증제품의 수급안정성을 위해 듀얼 인증제도* 구축, 포스코 해외 생산기지 및 국내 관련업체와 협력관계 구축 등

* 주요 생산라인 뿐만 아니라 대체 생산라인도 수요처 인증을 사전에 획득

- 한편, 포스코뿐만 아니라 **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**들이 태풍, 지진 등 유사시에도 **핵심 산업으로의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**할 수 있는 수준의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**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**

③ 마지막으로, 조사단은 금번 설비 복구 완료 후에도 핵심 설비나 부품의 침수·화재 영향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어, 철강부문 당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**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**는 점을 강조함

3. 향후 계획

□ 조사단은 12월말 활동 종료시까지 BCP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**BCP 수립 권고내용을 구체화**하는 한편, 향후 설비 복구 진행에 따라 **수급통계 분석을 업데이트**할 예정임

○ 태풍 내습시 화재가 발생했던 2열연공장의 복구 이후인 **12.19일주에는 4차 현장조사**를 실시하여 2열연을 비롯한 **연내 재가동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**하고 **철강재 수급 영향 여부를 최종 판단**할 예정이며,

○ 이러한 조사·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**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**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임

□ 산업부는 철강수급조사단 활동과는 별개로 『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』 등을 통해 철강수급을 점검하고 복구물품 조달과 주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을 지원하였고,

○ 포항시를 **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**으로 지정(10.31)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,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임

○ 앞으로도 포스코가 복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복구하고 향후 재해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하겠음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철강수급 조사단 개요 및 활동 경과**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(**배경**) 정부 주도「포항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」와 병행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·전문적 상황 판단 및 방향 제시 필요성 제기

○ (**역할**) 철강재 수급 및 재난대비 시스템 관련 조사 후 개선안 제시

① **철강재 생산 정상화 시기 예측**을 통해 철강 및 전방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반영

* 철강재 생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사항 확인, 생산·재고·출하 등 현황 파악으로 수급상황 확인 등도 진행

② **재난 대비 시스템 점검** 및 **피해원인·상황 파악**을 통해 설비노후화 상황에 있는 기존 주력산업의 **재난 대비 시스템 개선방향** 제시

□ 조사단 구성 (총 10명)

구분		이름	소속기관 및 직위
단장		민동준	연세대학교 교수
간사		김영주	금속재료연구조합 이사
민간전문가	기계설비	김동철	前 포스코 압연설비 투자그룹장
		설진삼	前 현대제철 엔지니어
	재해재난	김태형	아람코퍼레이션 대표이사
		김계조	前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
	수급	정은미	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
정부	산업부	노승구	철강세라믹과
		김유림	지역산업과
	노동부	김원빈	안전보건감독기획과

□ 활동 경과

일정	일시	장소	주요 점검 내용	비고
1차 현장조사	9.16(금)	포항	- 포스코·현대제철 및 협력업체 복구상황	단장, 간사
사전준비회의	9.20(화)	서울	- 조사 방향 및 방법, 범위 및 조사 항목 협의	조사단 전원
2차 현장조사	9.23(금)	포항	- 포스코 재해재난 대응시스템 및 제품생산공장 복구 현황 점검 - 철강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	조사단 전원
3차 현장조사	10.20(목)	포항	- 1열연공장 재가동 현황 - 2열연공장 설비 복구 계획 - 인증 제품에 대한 공급 계획	필요인원